## 전 재산 털어 간척사업

# 오오카지 시치베에

‘4대강 개발’ 문제는 2011년에도 우리 사회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시작 이후 지금까지 개발의 정당성과 효율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리어 우리 사회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종교계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사를 중심으로 설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까지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말 핵심 공정률은 60%를 넘어섰다. 또 3일에는 강변개발의 근거가 되는 천수구역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하천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주민 간의 첨예한 이해다툼 문제가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계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개신교 일부에서 분명한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개신교의 경우 8개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고질적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이웃’은 17~18세기 일본 치산·치수 영웅 세 사람의 개발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해봤다. 오오카지 시치베에(1621~1689), 기요하라 타헤에(1711~1787), 스토우 야헤에(1651~1752)가 그 주인공. 모두 일본 시마네현 인물로 각기 간척 사업, 운하 건설, 치산·치수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다.

이들은 수재(水災) 때문에 하늘만 원망하며 사는 이웃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개발에 나섰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분명한 개발 명분 제시, 사회적 합의 도출, 자연의 흐름을 읽는 생명 사상, 후손을 잇는 개발 집념, 이익의 고른 분배 등으로 오늘날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인력만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바꾼 역사(役事)는 200~300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의 순환을 반복하며 그 공과를 후대가 안으며 살고 있다. 그 현장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신년기획 하나님과 자연

**일본 치산치수 영웅에게 길을 묻다**

오오카지 시치베에 동상

글 싣는 순서

㊤전 재산 털어 간척사업 - 오오카지 시치베에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 - 기요하라 타헤에

㊦42년 망치 하나로 강을 바꾸다 - 스토우 야헤에

## 5년간 나무 심고… 25년간 용수로 파고… 친환경 대역사 3대가 잇다

이즈모(일본)= 글 전정희 기자·사진 윤여홍 선임기자

지난 12월 24일 일본 이즈모시 루터교회 앞.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불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곳의 일상적인 날씨 현상이었으나 이날은 유독 심했다.

루터교회 뒤로 수백년 된 소나무 숲이 병풍을 이루고 있었다. 그 숲 때문에 한결 바람이 덜하다는 것이 동행한 데라이 도시오(77·역사학자)씨의 설명이었다. 맞바람을 헤치고 숲으로 다가서자 소나무는 한결같이 일본 본토를 향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피사의 사탑 기울기였다.

이곳 사람은 이 숲을 야토오리산(八通山)이라 부른다. 언덕 정도이지만 산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639년. 이즈모평야를 관통해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히가와(江)가 대홍수로 범람했다. 1637년에도 홍수 피해를 보았던 이즈모평야 농민들에겐 재기 불가능한 범람이었다. 더구나 대홍수로 히가와의 흐름이 동해에서 신지코호로 바뀌어 버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지도 참조). 강 흐름이 바뀌자 이즈모평야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논밭으로도 쓸 수 없는 거대한 황무지가 돼 버리고 만 것.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쓰에번의 영주 마쓰다이라 나오마사(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자)는 사막화로 세수가 감소하자 농본령을 발표해 농민을 쥐어짰다.

당시 중농이었던 오오카지 시치베에. 기근에 허덕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쌀을 꾸러 오는 것을 보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데라이씨의 얘기.

### 바닷바람에 사막화 기근 시달려 방풍림 조성 수로 건설 옥토 변신 토지수용 저항 설득 합의 이뜯어

“강이 사라지자 꽤 넓은 땅이 생겼어요. 번에서는 측량을 해 농경지를 만들려고 했으나 모래땅이라 포기하고 말았죠. 이때 시치베에가 나섰습니다. 바로 이 방풍림을 조성하기 시작한거죠. 번은 개발은 허가하나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고 했어요. 시치베에는 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던 농민 한 사람과 목책을 세워 바람을 막습니다.”

시치베에는 5년간 목책을 타고 넘는 모래와 싸우며 방풍림을 조성했다. 쉬나무 싸리나무 떠나무는 모래에서도 잘 자라 모래산이 무너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됐다. 잡목 조성을 마친 그는 소나무 모종에 나섰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 모래땅이라 수분이 부족해 그대로 시들어 버렸다. 모종 뿌리에 진흙을 붙여 재시도했다.

그러기를 15년. 송림이 울창해지면서 야토오리산 내륙 쪽으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번은 그제야 시치베에를 인정하고 오오키모이리(주민 감독) 직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특별명령 7조’를 발표하여 죄수 등을 투입, 요즘으로 치자면 신도시 건설에 나선다. 40가구로 시작된 이주 마을은 그러나 척박한 토양 때문에 밭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폭동 등의 위기를 맞는다. 1663년 치안 무사가 파견돼서야 안정을 이룬다.

번의 지원에 힘을 얻은 시치베에는 벼농사를 짓기 위한 강폭 7m의 용수로 건설에 나선다. 히가와에서 동해로 빠지는 용수로만 만들어진다면 옥토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측량에 나서자 뜻밖의 벽에 부딪힌다. 가옥과 논밭이 수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농민들이 강하게 저항했던 것.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민 설득에 나서 해당 30개 마을 모두에 토지 소유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모래땅에 보(洑)를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즘같이 중장비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사리 나무로 보를 쌓아 통수를 하면 무너지기 일쑤였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는 지형적이었고요.” 데라이씨는 당시 용수로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홍수보다 더 큰 문제는 용수로를 따라 물이 동해에 닿기도 전에 모래땅에 흡수돼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인부들이 태업을 벌이고 마을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사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 편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아라키커뮤니케이션센터(주민센터) 다쿠로우 요네다 센터장은 “간척에 따른 농지 분배의 약속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같다”며 “결국 훗날 이 약속은 지켜졌다”고 말했다.

시치베에는 용수 흡수 문제를 용수로 바닥에 돗자리 5만개를 깔고 진흙으로 덮어 해결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공사로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비용으로 충당했다.

그가 간척에 나선 지 30여년. 용수로를 통해 이즈모평야에 농수가 공급돼 옥토가 됐다. 7m 폭의 용수로는 사실상 운하가 되어 일본 전통 나무배 다카세가 운항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카세천의 어원이 됐다. 마쓰에번은 이 운하가 생기기 전 신지코-나카우미-동해로 이어지는 항로를 택해 오사카까지 쌀 수송을 했다.

한데 시치베에 마음속에 걸리는 딱 한 가지가 있었다. 히가와의 물을 끌어들이는 수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견고성이 떨어졌던 것. 1689년 봄 큰비가 내리던 날 수문 붕괴를 염려한 그가 비를 맞으며 수문 말뚝을 보강하다 쓰러지고 말았다. 운명 직전 그는 아들 드모사다에게 재설계도를 물려주고 생을 마감한다.

### 후손 430m 갑문식 암벽통로 완공 철도 등 발달로 운하기능은 퇴색 물놀이-고기잡이-시민들 자브심

그러나 드모사다는 그해 가을 실종되고 말았다. 번의 관리였던 그가 왜 실종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을 어겨 처형됐다는 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바람에 시치베에 가문은 간척 공적으로 받은 논밭을 모두 뺏기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치베에의 아내 마쓰와 며느리 사다는 드모노리에게 할아버지의 유업을 잇도록 했다. 그리고 1712년 마침내 430m에 달하는 갑문식 구리하라 암벽통로를 완공한다. 이 갑문식 통로는 파나마운하의 갑문식보다 200여년 앞선 것이다.

22일 이즈모 시내 다카세천. 이즈모시 도시계획조정관 기시 가즈유키씨가 건설성으로부터 받은 ‘생활하천 30선’ 수상 기념석 앞에서 다카세천의 역사를 설명했다.

“사막화됐던 이즈모 들판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카세천 때문입니다. 인력만으로 이뤄낸 대역사로 그 길이가 8㎞입니다. 지금도 천수환경으로 이용되는 시민의 자랑거리입니다.”

시의원 진베 젠고씨도 중심부를 흐르는 다카세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어린이들은 물놀이와 고기잡이, 어른들은 천변에서 마쓰리(일본식 축제), 장기, 불꽃놀이 등을 즐긴다고 말했다.

19~20세기에는 잠업 요업 염색업 기와공장의 용수로도 쓰였다. 당시 목조주택이 많아 방화용수로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동해와 닿는 하구에서는 조류 관찰 및 습지 탐사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치베이 후손이 개발한 마부천, 묘오센지천, 즛겐천, 사시미천 등도 근대 이후로 그 기능이 유사했다.

시치베에 간척 300여년. 인구 14만여명의 이즈모시는 마쓰에시와 함께 물의 도시가 됐다. 곳곳에 폭 4~7m 수로가 천수환경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됐다. 도시가 경제력을 갖췄을 경우 그 천수환경이 유지가 되고 아닐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공업용수 하천 용도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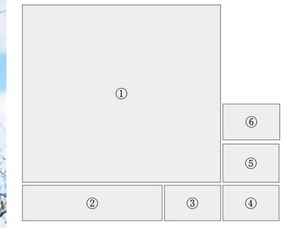
그러나 해상 운송의 혁명적 역할을 했던 운하의 기능은 철도와 지상 운송수단의 발달로 한 세기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4대강 운하 논란에 참고할 대목이다.

25일 오후 다시 루터교회 앞. 시치베이 가문이 건설한 세 곳의 방풍림은 시민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 방풍림이 없었다면 도시는 제 기능을 잃을 것이다.

2000년 33.9㎞의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간척지는 비산먼지와 전쟁 중이라는 소식이다. 갯벌이 건조해지자 바닷바람에 먼지가 되어 날리기 때문이다. 이 먼지는 과실과 나뭇잎에 달라붙어 성장에 장애를 일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염생식물을 심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이즈모 간척 이후 300년간의 변화는 새만금간척지에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시치베에는 5년간 나무를 심었으며 25년간 용수로 공사를 했다. 또 3대에 걸쳐 생태의 변화를 주시하며 자연을 극복했다. 건설기기 발달은 시치베에 30년 개발을 단숨에 1년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개발된 자연은 당대의 우리만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태의 순환을 지켜보며 조금씩 개발해 나갈 일이다.

취재 지원 :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①이즈모 시내를 관통하는 다카세천. 한때 운하로 이용됐으나 교통 발달로 천수하천으로 리모델링됐다. ②산 위쪽에서 바라본 이즈모 평야. 개발 당시 운하가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③루터교회 뒤로 방풍림이 보인다. ④시치베에 무덤. ⑤시치베에기념사업회장의 관련 유물 설명 ⑥방풍림의 기운 소나무.

### 日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에 감사장

국민일보 조민제(사진 가운데) 대표이사 사장이 일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66·왼쪽) 이사장으로부터 자연개발 보도와 관련해 감사장을 받았다.

고마츠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층에서 열린 국민가족 수요예배에 참석해 조민제 사장에게 “국민일보 섹션 ‘이웃’이 지난 1월 일본 이즈모 반도의 치산·치수 영웅 3인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과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김현철(78·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고문이 배석했다.

지난 1월 6일, 13일, 20일 등 3회에 걸쳐 보도된 기획물 ‘하나님과 자연’은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해 창조질서 시각으로 해답을 얻고자 일본 시마네현(이즈모)에서 취재가 이뤄졌으며,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취재를 지원했다. 일본 치산·치수 영웅 오카지 시치베에(1621~1689) 등 3인은 운하, 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국민의 편에서 추진했다. 본보는 이들이 개발한 300여년 후 자연환경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했다.

조국현 기자

## 全財産をかけ干拓事業

# 大梶七兵衛

「4大河川開発」問題は2011年にも私たちの社会の熱い問題になると思われる。2008年下半期に始まったこの事業（4大河川開発）は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事業と呼ばれて漢江、洛東江、金江、栄山江、各水系で進行している。

しかし工事を始めて以後、今まで開発の正当性と効率において賛否両論に分かれ、社会が葛藤する要素になっている。宗教界、政界、市民団体、言論界を中心に舌戦を越えて物理的な衝突までもたらしている状況だ。そんな中でも昨年末、重要な部分の工程進捗率は60%を越した。また3日には川岸の開発の根拠になる「親水区域法施行令」が立法予告され、河川生態系破壊や環境汚染に対する憂慮、住民の間の尖鋭な利害争いなど、この問題が私たちの社会を熱く沸き立たせ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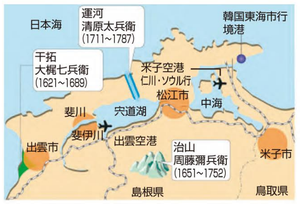
特に宗教界はカトリック、仏教、円仏教そしてプロテスタントの一部がはっきりと開発反対の声をあげていて、この問題をめぐる社会全般の内輪もめは簡単には静まらないだろう。

プロテスタントの場合8つの教団の協議体である韓国キリスト教教会協議会（NCCK）は事業中断を促した。その一方で、保守志向の韓国キリスト教総連合会は「長引く水問題解決と地域活性化」を理由に支持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について国民日報「イウッ（隣り）」は17－18世紀の日本における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開発事例を通じてケーススタディ（Case study）をしてみた。大梶七兵衛（1621～1689）、清原太兵衛（1711～1787）、周藤彌兵衛（1651～1752）が、その主人公である。皆、日本の島根県出身の人物でそれぞれ干拓事業、運河建設、治山治水事業に全生涯を捧げた。

これらの事例は、水害のため空を仰ぎ見て恨みながら暮らす周囲の人たちのために、犠牲をおかして開発を始めたという共通点を持っている。また明らかな開発の目的を提示し、社会的合意を導き出した上で始めたこと、また自然の流れを読む生命思想、子孫に引き継ぐ開発の執念、利益配分などで今日まで尊敬の対象になっている。

人力だけで大自然の流れを変えた事業は200－300年が過ぎた今も生態の循環を繰り返して、その功績を後代が抱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その現場を3回にわたって連載する。



新年企画　神と自然
日本 治山治水 英雄に 道をたずねて

記事掲載順
㊤全財産をかけ干拓作業　大梶七兵衛
㊥命をかけて8kmの運河をつくる　清原太兵衛
㊦42年金づち一つで川の流れをかえる　周藤彌兵衛

大梶七兵衛　銅像

## 5年間木を植え、25年間水路を掘る… 3代が継いだ大事業

出雲（日本）＝記事　全正熙記者、
写真　尹汝弘専任記者

去る12月24日、日本の島根県出雲市ルーテル教会前。吹雪を伴った強風が姿勢を保ちにくいくらいに吹いた。東海（日本海）から吹いて来る風は、こちらの日常的な天気現象だったが、この日は特にひどかった。

ルーテル教会の後ろで、数百年を経た松の森が屏風を成していた。その森のおかげでひどい風が弱まると、同行した寺井敏夫氏（77・作家）が説明した。向かい風をかきわけて森に近寄ると、松は一斉に日本本土に向かって東側に傾いていた。ピサの斜塔の傾きだった。こちらの人はこの森を八通山と呼ぶ。大きさは丘程度だが、山と呼ぶのには理由がある。

1639年、出雲平野を貫いて東海（日本海）に流れる斐伊川が大洪水で氾濫した。1637年にも洪水被害を受けた出雲平野の農民たちにとっては再起不能な氾濫だった。その上に大洪水で斐伊川の流れが東海（日本海）から宍道湖に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信じられない事が起った（地図参照）。川の流れが変わると出雲平野は東海（日本海）から吹いて来る砂風で砂漠化が急速に進行した。田畑に使うこともできない巨大な荒れ地になってしまった。

当時この地域を治めた松江藩の領主松平直政（徳川家康の子孫）は砂漠化で税収が減少すると、農は基本と発表して農民を絞りあげた。

当時、中農だった大梶七兵衛。飢饉に苦しむ村人が、自分の家に米をもらいに来るのを見て大きな決心をするようになる。

### 海風、砂浜化、飢饉に悩まされつつ、粘り強く農民と会話、防風林造成、肥沃な土地に変身

「川が消えると、かなり広い土地が生じました。藩では測量をして農耕地を作ろうとしたが砂地だからあきらめてしまいました。この時、七兵衛が先導します。まさにこの防風林を造成し始めたのです。藩は、開発は許可するが財政支援は不可能だと言いました。七兵衛は屈しないで自分についてきた農民一人と木柵を立て風を防ぎました」（寺井氏の話）

七兵衛は5年間、木柵を越えてくる砂と闘いながら防風林を造成した。椎の木、萩の木は砂のなかでもよく育って砂山が崩れず、助けになった。雑木の造成を終えた彼は、松の木を植え始めた。しかしいつも失敗。砂地のため水気が不足し、そのまま枯れてしまった。植樹の苗根に泥を付けて再度やり直した。

そうして15年。松林が鬱蒼となり、八通山の内陸の方で植物が伸び始めた。藩はやっと七兵衛を認めて大肝煎り（大庄屋）という職位を授ける。そして「特別命令7条」を発表して囚人などを投入、最近でいう新都市建設に出る。40世帯で始まった移住の村はしかし、養分のない土壌のため畑作もまともにできず、住民の暴動などの危機にあう。1663年、治安のために武士が派遣されてから安定するようになった。

藩の支援に力を得た七兵衛は、稲作のために河幅7mの用水路建設を始める。斐伊川から東海（日本海）に抜ける用水路さえあれば、肥沃な土地になるのに時間はかからないと思われたからだ。しかし、彼が測量を始めると思いがけない壁にぶつかる。家屋と田畑を奪われる境遇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農民たちが強く抵抗した。彼は長い時間をかけて、住民たちを説得し、該当する30の村すべてに土地所有の恩恵を与えると約束した。

「しかし砂地に堰をつくるということは不可能に思われた。今のように重装備があれば分からないですが。木で堰を造って通水するというのも難しい作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崩れるのは当たり前だったんです。洪水のような自然災害は致命的だったんです」寺井氏は当時の用水路図面を見せてくれながら説明した。

洪水よりもっと大きい問題は用水路に沿って水が東海（日本海）に着く前に砂地に吸収されて消えることだった。こうなると人足たちが業務を怠り、村に入って乱暴をはたらいた。また世論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権力のある人は、利害の当事者である住民の側に立って工事中止を要請した。

荒木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住民センター）米田卓朗センター長は「干拓による農地分配の約束が工事を続けるための重要な要因だった。結局、その後この約束は守られた」と言った。

七兵衛は用水吸収問題を用水路の底に、むしろ5万枚を敷いて、泥で覆って解決した。考えてもいなかったこの工事で彼は全財産を売って、その費用に充てた。

彼が干拓に出てから30余年。水路を通じて出雲平野に農業用水が供給されて沃土になった。7m幅の用水路は事実上、運河になって日本伝統の木の船、高瀬船が運航することができた。それが高瀬川の語源となった。松江藩はこの運河ができる前、宍道湖-中海-東海（日本海）につながる航路を選んで大阪まで米輸送をした。

ひとつ七兵衛の気になることがあった。斐伊川の水を引き入れる水門が木で作られていて、堅固ではないこと。1689年春、大雨が降った日、水門の崩壊を懸念した彼は、雨に濡れながら水門の杭を補強していて倒れてしまった。運命の日の直前、彼は息子、朝定に再設計図を譲って生涯を終える。

### 子孫が430mの岩樋を完工、鉄道などの発達で運河機能は衰えたものの、水遊び、魚釣りが市民の自慢

しかし、朝定はその年の秋に失踪してしまった。藩の官吏だった彼がどうして失踪したのかは分からないが、法を破って処刑されたという説が今まで伝えられている。このために七兵衛の家門は干拓の功績によって受領した田畑をすべて奪われてしまった。そんな中でも七兵衛の妻マツと嫁のサダは朝廷が祖父の遺業を継承するようにした。そして1712年、ついに430mに達する閘門式栗原岩樋が完工する。この閘門式水路はパナマ運河の閘門式より200余年前に作られたものだ。

22日出雲市内、高瀬川。出雲市都市計画調査監の岸和之氏が建設省から受けた「生活河川30選」受賞記念碑の前で高瀬川の歴史を説明した。

「砂漠化された出雲平野で稲作を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まさに高瀬川のおかげです。人力だけで成した大事業で、その長さが8kmです。今も親水環境として利用される市民の自慢です」

市会議員・珍部全吾氏にとっても、中心部を流れる高瀬川に対する自負心は大きいものであった。子供たちは水遊びと魚捕り、大人たちは川辺で祭りをし、また花火なども楽しむと言った。

19－20世紀には蚕業、染色業、瓦工場の用水路としても使われた。当時木造住宅が多く、防火用水としても大きな役目を果たした。東海（日本海）と触れる河口では鳥類観察、及び湿地探査の空間にも活用される。七兵衛の子孫が開発した間伏川、妙仙寺川、十間川、差海川なども近代以後、類似した機能を発揮している。

七兵衛の干拓後300余年。人口14万人余の出雲市は、松江市とともに水の都市になった。あちこちに幅4－7mの水路が親水環境を作り出す美しい都市になった。都市が経済力を持った場合、親水環境が維持されていないと、19世紀末、20世紀初めのように工業用水のための河川として使われてしまう。

しかし、海上運送の革命的役目を果たした運河の機能は、鉄道と地上の運送手段の発達により、1世紀を経て衰えてしまった。4大江の運河の議論に参考となるところである。

25日午後、またルーテル教会前。七兵衛の一族が建設した3箇所の防風林は市民の風よけになっている。防風林がなかったら都市は本来の機能を失うだろう。

2000年、33.9kmのセマングム防潮堤が完工した後、セマングム干拓地は飛散するほこりとの戦いの真っ最中と伝えられる。干潟が乾燥すると、潮風によりほこりが飛ぶからだ。このほこりは果実と木の葉に付着して成長に障害を与える。韓国農漁村公社は（高塩濃度に耐える）塩生植物を植えて対策を立てていると言うが、根本的な解決策ではないようだ。出雲干拓以後300年間の変化は、セマングム干拓地にとって良い教科書となることを意味する。

七兵衛は5年間木を植えながら、25年間用水路工事をした。また3代にわたって生態の変化を見つめて、自然を克服した。建設機器の発達は、七兵衛の30年の開発を一気に1年に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その開発された自然は、当代の私たちだけが生きて行く基盤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生態の循環を見守って少しずつ開発して行くということだ。

①出雲市内を通る高瀬川。かつて運河として利用したが、交通の発達によって親水の川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②山の上から眺め見る出雲平野。開発当時、運河が重要な運送手段であった。③教会の後ろから防風林を見る。④七兵衛の墓。⑤大梶七兵衛顕彰会　大野敏夫会長による説明⑥風により斜めになった松の木の防風林。

取材支援：
日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翻訳　金有辰
監修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 （財）人間自然科学研究所、国民日報趙旻濟社長に感謝状

国民日報 趙旻濟（チョミンジェ、写真中央）代表取締役社長が、日本人間自然科学研究所小松昭夫（66・左側）理事長から、自然開発報道に関して感謝状を受けた。

小松理事長は16日ソウル・汝矣島の国民日報ビル11階で開かれた“国民家族”の水曜礼拝に参加して、趙旻濟社長に国民日報セクション・イウッ（隣り）が去る1月、日本島根半島の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業績に対して、「『神と自然』という観点で報道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光栄に思う」と、感謝状を授与した。授与式には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金顕哲（キムヒョンチョル、78・前放送委員会企画室長）顧問が同席した。

去る1月6日，13日，20日の3回にわたって報道された企画‘神と自然’は、論議を起こしている4大河川開発問題に対して「創造」「秩序」「視覚」で解答を求めようと日本島根県（出雲）で取材が行われ、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取材を支援した。日本治山治水の英雄3人は運河、干拓などの開発事業を国民として推進した。この報道は彼らによる開発から300年あまりを経て、自然環境に及ぼした長所短所を集中報道した。

チョ・グッヒョン記者